

□ 해외 출장 보고

중앙아시아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를 다녀와서

서 정 목

(국립국어연구원 연구2부장)

1. 목 적

이 글은 1992년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해외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권인한 연구원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도 알마타를 다녀온 경험을 적은 것이다. 집필 목표를 앞으로 유사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잡고, 그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개인적 경험과 반성을 중심으로 기술해 나가고자 한다. 3부터는 이 연수를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 있던 종합 의견과 전의 사항을 정리하여 옮겨 적은 것이다.

2. 일정과 소감

7월 10일(금) 13시 15분 모스크바를 거쳐 취리히까지 가는 대한항공 KE 913편으로 출국하였다. 19:00 울란 우데(Ulan Ude, 붉은 깃털), 바이칼호 위 등을 날아 말로만 듣던 시베리아 항로를 10시간 이상 날아가서 18시 30분(모스크바 시간, 서울 시간+5시간) 모스크바의 쉼레메체보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의 첫인상은 상당히 어둡고 활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사관의 이종석 교육관, 이문직 한국학교장의 안내를 받아 레닌 거리의 스푸트닉 호텔에 투숙하였다.

7월 11일(토) 새벽 첫 번째 보고서를 썼지만 전송으로 부칠 길은 막막하고 국제 전화도 신청하여 기다리는 체제이라 선불리 연락할 수도 없었다. 아침은

뷔페(우리 식으로 간이 식당)에서 빵, 소시지 한 조각, 과일즙 한 잔으로 때웠다. 영어는 거의 완전히 통하지 않았다. 손짓 발짓으로 먹을 것을 주문하고 필담으로 값을 지불하면서 난감함을 느꼈다. 아침부터 알마아타로 출발하기까지 크렘린궁, 붉은 광장, 푸시킨 박물관, 국립 모스크바 대학을 둘러 보았다. 알마아타행 비행기에까지 안내할 대사관 추천의 동포 여행 안내원 김나리사는 타슈켄트 출신이라고 했다.

14시 05분 도모체도보 공항에서 알마아타로 가는 에어로 플로트 SU-503편을 탔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스크바는 잘 계획된 도시였다. 군데군데 우거진 수목, 초원, 못,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내부 정리가 끝나면 곧 다시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이 될 잠재력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4시간 정도 가서 21:00 (알마아타 시간, 모스크바 시간+3시간) 알마아타 공항에 도착하였다.

알마아타(Alma-Ata: ‘사과의 아버지’라는 뜻의 카자흐어)는 동쪽으로 만년설을 머리에 인 천산산맥이 우뚝 버티고 서 있고 가로수가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로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신계철 한국교육원장, 변영종, 이호영, 최미옥 선생 등 알마아타 한국교육원 직원 모두 마중나왔다. 알마아타 호텔에 투숙하였다.

7월 12일(일) 새벽 05:00 처음으로 한국에 전화가 연결되어 원장님께 도착 보고를 하였다. 10:30, 신계철 원장이 나가는 알마아타 고려장로교회에 갔다. 동포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 인사할 기회를 주어서 짧막하게 이곳에 온 목적과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이 말은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라면서 박덕환 할아버지가 즉석에서 러시아말로 통역해 주었다.

7월 13일(월) 10:00, 연수회 개강식을 하였다. 수강 인원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18개 주에서 2명씩 36명과 알마아타 소재 대학 교수 등 40명 이상이 되었다. 수강자들의 우리말 구사 능력이 고르지 않아 우리가 준비해 온 내용으로는 강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았다.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국어의 역사, 국어 문법의 기초, 우리말의 예절 등을 공부하겠다고 연수회 내용을 안내하고, 가져 온 교재는 모두 한국교육원 측에 맡겨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부탁하였다. 점심 시간까지 행정 처리하는 시간에 잠깐 카자흐스탄 종합대학을 둘러 보았다. 입학 시험 기간이었다.

13:30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첫 강의는 ‘우리말과 글이 걸어진 길 1(고대 국어~훈민정음 창제, 서정목 담당)’을 현지 사정에 맞게 풀어 설명하였다. 15:20에 강의 끝내고 보고서 작성하여 처음으로 그동안 밀린 보고서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 날부터 동포 할머니(임로사, 68세, 연해주 포시예트 출생, 1937

년 강제 이주) 덕에 민박하기로 하였다. 할아버지(주영락, 72세, 경남 함안 출생, 18세 때 징용, 사할린에서 1970년대에 이주)와 같이 사는 17평 가량의 아파트였다. 이 할머니는 로스 킹(Ross King)이 주요 제보자로 모셨던 분이다.

7월 14일(화) 10:00부터 '남북 맞춤법 비교 1(자모의 수와 이름 및 차례, 권인한 담당)', 13:30부터 '경어법(어휘적 존대, 주체 경어법, 청자 경어법, 서정목 담당)'을 강의하였다. 문법은 교재를 만들어 복사하여 나누어 주어야 했으므로 교재 작성이 매우 바쁜 일이었다. 다행히 한국교육원에는 컴퓨터가 있어 그것을 이용하였기에 비교적 수월하진 하였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7월 15일(수), 10:00부터 오전 강의는 '남북 맞춤법 비교 2(두음법칙, 사이시옷, 어간과 어미, 모음의 차이, 권인한 담당)'였고, 13:30부터의 오후 강의는 '시제 체계(사건시와 인식시, 선어말 어미의 종류, 서정목 담당)'였다.

7월 16일(목) 오전은 '표준 발음법 1(자음, 모음의 발음, 권인한 담당)'이었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두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며 녹음하였다. 13:30부터 한 시간 동안은 고향의 봄, 과수원길, 꽃꽃 등의 동요를 가르쳤다. 강미랑 씨라는 목사 부인이 맡아서 잘 지도해 주었다. 14:30부터의 오후 강의는 '문장의 종류(문장의 종결, 문장의 접속, 부정문 형성, 서정목 담당)'이었다. 내일 우리가 타슈켄트로 떠난다고 저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헌절 기념 및 권인한 연구원 생일 파티를 마련해 주었다.

7월 17일(금) 05:15, 변영종 선생 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슈켄트로 향하다. 10시간을 120km/h 이상씩 달려 13:15(타슈켄트 시간, 알마타 시간+2시간) 타슈켄트에 도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호텔에 방을 잡고 14:00에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 한국어과의 문갈리나, 최스웨틀라나, 안릴리야 선생 만나서 15:00 니자미 사범대학을 방문하였다. 16:15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방문하여 안재식 원장과 면담하고 함께 17:30 타슈켄트 광주 한글학교를 방문하였다. 최스웨틀라나 선생은 이 한글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었다.

7월 18일(토) 10:00에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그 지역 한국어 교육 관계자와 좌담회를 가졌다. 안재식 원장, 니자미 사범대 유일리아 교수(한국학과장, 러시아 문학 전공), 국립 타슈켄트 동양학 대학 김문옥 교수(야금학 전공)가 참석하였고, 이춘식 선생이 통역하였다. 동양학 대학은 다음 학기부터 한국학 부를 출범시킬 계획인데 교수가 확보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였다. 주된 내용은 교재 지원과 서울로부터의 교수 파견 요청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친북적 성향이 짙다는 느낌이 들었다.

11:00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립 박물관을 관람하고, 15:00 안재식 원장과 함께 두술리크(舊 폴리테크) 콜호즈를 방문하였다. 이 땅에 강제 이주 당해 온 우리 동포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집단농장이었다. 지금은 회장을 우즈베크인이 맡고 있었다. 17:20 한국 동포들이 쌀, 감자, 수박 등을 파는 시장을 구경하였다.

저녁에는 니자미 사범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 말 돌아가신 고 명월봉 교수 댁을 방문하였다. 부인으로부터 회고담 원고(미완성 유고)를 얻어왔다(이 원고는 월간조선 1992년 10월, 11월호에 연재된다.). 지난 8월의 초청 연수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종합대학의 명드미트리 교수는 고 명월봉 교수의 맏아들이다.

7월 19일(일) 09:00 타슈켄트를 출발하여 10시간 반을 달려 17:30(알마아타 시간) 알마아타에 도착하였다. 섭씨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였다. 황량한 중앙 아시아 벌판에도 접시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고국 생각을 북돋우었다. 광주 한글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허신행 선생이 우리 연수에 참가하고자 같이 알마아타로 왔다.

7월 20일(월) 09:30부터 '표준 발음법 2(경발침의 발음, 소리의 닮기, 권인한 담당)'를 강의하고 13:30부터는 '문장의 성분과 조사(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격 조사, 특수 조사, 서정문 담당)'를 강의하였다.

17:15에 박일 재소 고려문화 회복추진회장을 댁으로 찾아가 뵈었다. 초대 김일성 대학 부총장(당시 명예 총장은 부수상 김두봉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최고 책임자였다 한다.)을 지내면서 북한의 고등 교육의 틀을 잡은 레닌그라드 사범대학(스티코프 중장 부인과 이 학교 동기생이라 했다.) 출신의 철학자였다. 훈민정음에 관심이 많았다. 저녁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작가협회의 박미하일 씨 댁을 방문하였다.

7월 21일(화) 09:30 오전 강의는 '표준 발음법 3(된소리 되기, 소리의 첨가, 권인한 담당)'이었다. 12:00에 한진 카자흐스탄 조선작가동맹 위원장을 알마아타 한국관에서 면담하였다. 북한에서 유학생으로 왔다가 망명한 사람이었다. 13:30부터 오후 강의는 '우리말의 예절 1(춘수 헤아리는 법, 호칭어와 지칭어, 서정문 담당)'이었고 15:40에 한성중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으로부터 선물로 증세 도자기 화보집을 한 권씩 받았다. 16:30에 서울시립대의 국악연수단과 함께 한국어 교육차 온 성기철 교수를 만났다.

7월 22일(수) 09:30 오전 강의는 '표준어 및 총정리, 복습, (권인한 담당)'이었고 13:30부터의 오후 강의는 '우리말의 예절 2(호칭어와 지칭어 나머지 부

분, 전화 예절, 인사말, 서정목 담당)'이었다. 이 '우리말의 예절' 교재는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에 올 기회가 있는 사람이나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정도였다.

15:30부터 짧은 시내 관광을 하고 18:00에 알마아타 고려식당에서 한국교육원장이 주최한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연수 참가자 전원과 교육원의 전 직원이 같이 자리하였다.

7월 23일(목) 09:30부터의 마지막 강의는 '우리말과 글이 걸어온 길 2 (훈민정음 창제~광복, 서정목 담당)'로 중세 국어, 나라와 말과 글을 잃은 시대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강의를 끝내면서 한 마지막 말은, '1. 한국 사람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조국은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는 해외 동포들이 조국을 도와 주어야 한다. 2. 후세들을 카자흐어,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능력 있는 인재로 길러 달라.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 조국을 조금이라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목표이다.'라는 것이었다. 대부분 숙연한 얼굴로 들어 주었다.

수료식 직전에 카자흐스탄 라디오 방송국의 우경애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였다. 알마아타 방문 목적, 국어연구원의 기능, 소감, 동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등을 물었다. 한국어 방송 시간에 내보낼 계획이라 했다.

11:00 수료식, 신계철 원장과 전 직원, 성기철 교수(성 교수는 다음날부터 수강자 중의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말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규태 교수(알마아타 아바이 사범대학 한국어 교수), 연수 참가자 26명 등이 참석하였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수료증 내용을 다 읽고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리며 진행하였다.

11:30에 국립국어연구원 주최 점심 겸한 다과회식 간담회를 열었다. 수강생 전원에게 소감을 말할 기회를 주었다. 서툰 우리말로 하는 분에 넘치는 칭찬을 들으며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들을 되새겼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일반적으로 강의한 무리한 연수였음에 틀림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우리 말을 거의 모르므로 '가, 가, 거, 겨'부터 가르쳐야 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강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많이 남기고 왔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어문 규범이 통용되던 사회의 동포들에게 서울의 어문 규범과 표준어, 언어 예절, 문법 기초 등에 관

하여 참고로 쓸 수 있는 교재를 많이 두고 왔다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구동성으로 내년에도 다시 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우리 둘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시원하게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귀국하여 내년에도 누군가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보고서를 쓰겠다는 약속 밖에는 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격의 연수를 실시한다면 두 사람 모두 교체하지 말고 한 사람은 얼굴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4:00에 숙소에 도착, 짐을 정리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집에 가지고 계시던 북한이나 소련에서 나온 30권이 넘는 책을 필요하면 모두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최대한 가져와서 우리 연구원의 자료실에 소장하기로 하였다. 우리에게 '우리말의 예절' 한 권을 달라고 하였다. 우리가 쓰던 교재를 드리고 왔다. 아쉬움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18:00에 알마아타 한국교육원에 작별 인사를 한 뒤 알마아타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는 수강생 20여 명과 한국교육원 직원 가족들이 배웅 나와 있었다. 비행기 시간이 될 때까지 돌아갈 줄 모르고 이런 저런 이야기로 아쉬움을 달래고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며, 아아! 2주일 동안 이렇게 정이 들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동포의 정,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 애타고 있는가를 느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20:15에 모스크바로 출발(SU-506편) 다시 4시간을 날아가서 모스크바 도모체도보 공항에 도착하였다. 스푸트닉 호텔에 투숙하였다.

7월 24일(금) 10:00 모스크바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이문직 교장, 여영호 선생과 면담하였다. 주된 의제는 어린이들의 외국어 학습 문제였다. 12:30 대사관 이종석 교육관 주최의 오찬이 오작교 식당에서 있었다. 14:20 모스크바 시내를 이곳 저곳 돌면서 관광, 고서점들을 돌아보았다.

7월 25일(토) 10:00 스푸트닉 호텔을 나섰다. 안내는 전번과 같이 역시 김나리사였다. 11:00 크렘린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보석을 통째로 산더미처럼 쌓아 두었다는 과장된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 귀통이의 진열품만 가지고도 박물관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 있었다.

14:30 셰레메체보 공항 도착,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가 없었다. 15:00까지 굶으며 종업원들의 휴식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겨우 점심을 때우고 복잡한 출국 소속을 거친 후, 우리 나라 비행기에 올라 승무원들의 친절환영을 받을 때는 마치 안방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아! 그 길었던 2 주일 간의 이 땅에서의 불안했던 날들이 이제 모스크바의 무거웠던 밤과 함께 뒤로 가는구나! 16:50 대한항공 KE-914편은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7월 26일(일) 07:55(서울 시간) 김포 공항에 도착하였다.

3. 해외 동포 한국어 교육 목적

해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그들이 현지 주민들과 마찰 없이 화목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조국의 문화와 역사, 경제 발전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잣아질 우리 나라와 거주국 사이의 각종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 즉 한국인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와 상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우리 나라 사람들과의 다소 무분별한 접촉이 계속될 경우 자칫 해외 동포들에게 불필요한 우월감과 조국으로의 귀국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줌으로써,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현지 토착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여 다시 이주와 같은 어려운 참상을 겪게 될 우려까지도 있다. 실제로 동포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자신들이 타의에 의하여 억울하게 고향으로부터 쫓겨나 있다고 생각하고 광복된 조국이 왜 자신들을 불러들이지 않는지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해외 동포들에게 거주 지역의 언어인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등의 습득을 장려해야 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말들을 가르치도록 유도해야 하며 앞으로 러시아의 재진출에 대비하여 지금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어 교육에도 소홀하지 말 것을 당부해야 한다. 우리 동포들은 러시아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카자흐어나 우즈베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두 앞으로 2년 혹은 3년 동안만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또는 우즈베크어를 같이 쓰게 하고 그 후부터는 러시아어를 쓸 수 없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금도 공용어는 카자흐어 또는 우즈베크어이다. 학교 교육도 현지 토착 민족의 말로 한다.

4. 동포 사회의 성격과 한국어 사용 실태

동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로 이주해 갔다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 중앙 아시아로 어느 날 밤에 끌려온 사람들과 그 후 손들로서 동포 사회의 대다수를 점한다.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동기는 한 마디로 2차 대전을 앞두고 일본의 간첩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들 강제 이주 동포들이 염분과 갈대로 뒤덮인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 농사와 채소 재배를 중앙 아시아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이들이 옛 소련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였는가 하는 것은 타슈켄트 시에 우리 동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리가 넷이나 된다는 것이 웅변해 준다. 목표량 1200% 달성의 노력 영웅 김병화, 시인 조명희, 축구 선수 안미하일, 해군 장교 임알렉산더 등이 그들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력 영웅 총 25명 중 한국인이 24명, 우즈베크 인이 1명이라는 것도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들은 함경도 방언적 색채가 강한 말을 쓴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공산주의 고등 교육을 받고 나중에 북한 정권의 수립을 돕기 위하여 고위직으로 평양에 파견되어 소련군의 일을 돕기도 했다.

둘째는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로서 기후 조건이 열악한 사할린을 떠나 1970년대에 따뜻한 땅, 동포들이 많은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상도 출신이 많은 것 같고 중부 지역 출신도 있었다. 현지 중앙 아시아 한국어 방언에 영향을 입기는 하였지만 고향 방언을 쓰는 사람도 있다.

셋째는 북한으로부터 망명해 온 사람들로서 극히 일부이지만 이상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어를 사용한다.

한국어 사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50~60대 이상의 동포들은 함경도 방언적 색채가 강하면서 북한어의 영향을 많이 입은 특이한 중앙 아시아 한국어 방언(그 곳 술어로는 고려어: 전에는 조선어, 조선사람이라 하였으나 최근에는 고려어, 고려사람을 쓰는 경향이 높다고 동포들은 말했다. 이 말을 학문적으로 어떤 술어로 불러야 할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알마아타의 우리 말 신문도 ‘레닌 기치’에서 ‘고려일보’로 바뀌었다.)을 사용한다. 이 말 속에는 러시아어적 요소도 많이 들어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 일반인들과의 의사 소통이 어려울 수

도 있다. 우리도 가끔씩 되물어 확인하여야 할 단어가 많았다.

그러나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거의 한국어를 모른다. 한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60대의 어머니를 둔 30대의 아들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너,’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랐던 심경을 표현하기 어렵다. 듣기로는 1967년 이래 소련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카자흐어나 우즈베크어 등 다른 민족 언어도 사용 금지되었는가를 물어 보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한국어와 유태어 둘만이 사용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 층은 한국어를 모른다. 한국어 교사 중에도 젊은 사람들은 읽고 듣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아는 것도 북한의 조선어와 함경도 방언적인 고려어이지 표준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5.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가장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은 카즈흐어, 우즈베크어 등 현지 언어들과 러시아어를 잘 아는 동포 교사들을 통하여 간접 교육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몇 사람 있다 하더라도 아직 북한과의 유대가 강하고 우리말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들 현지 교사나 학자들에게 우리 나라에 와서 정식으로 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알마아타와 타슈켄트에는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한국교육원에 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동포 교사들에게 우리 나라의 어문 규범이나 우리말과 글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알마아타 한국교육원에는 국어 교사가 한 사람 파견되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타슈켄트에는 원장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교육부의 한국교육원, 국제교육진흥원과 문화부의 국립국어연구원이 서로 협조하여 동포 교사 재교육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국어연구원은 내년에도 알마아타나 타슈켄트에서 후속 연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한두 공화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옛 소련 지역에서 동포들이 살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모든 공화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모스크바이다. 모스크바에는 교육부와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가 있다.

주재원들의 자녀를 모아 유치원과 국민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 때에 이 학교를 이용하여 각 공화국으로부터 동포 교사들을 모아 연수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6. 우수 교사 확보 방안

한국에서 파견되는 각 대학의 한국어 교수나 사설 한글학교(예컨대 타슈켄트의 광주 한글학교)의 교사 선발은 국가 기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수는 모두 한국어 전공자가 아니고 심지어 언어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학 과정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어를 그 곳 대학에서 가르친다면, 한국의 표준어나 한글 맞춤법을 정확히 알아야 함은 물론, 나아가 국어학 연구의 경향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는데, 이들 가운데서 국내의 국어학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파견된 교수나 교사들은 한결같이 방언을 쓰고 있어 표준어와는 동떨어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외에 올바른 한국어 즉 일반적인 한국 국민과 만나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교육한다는 해외 동포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지에서는 북한에서 파견되어 온 카자흐 종합대학의 마수근 교수, 타슈켄트의 니자미 사범 대학의 허태훈 교수 등이 학문적으로나 인품으로 보아 한국에서 온 교수들보다 더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것은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한국 학계의 학문적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동포 사회나 외국에 심는 것으로 마땅히 재고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교사 및 교수 선발이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그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발 과정을 공개화하여 자격 있는 교사나 교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재교육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사정으로는 옛 소련 지역의 대학이나 한글학교가 한국에서 파견된 교수나 교사들에게 한국 수준의 급료를 지불하기는 어렵다. 그 나라 교수 급료(월 20달러 정도)는 한국의 교사나 교수 급료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국고나 국고에 준하는 예산으로 파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제도 아래서는 유능한 한국어 교수 요원을 현지에 파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전공 자원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 봉사단'을 설립 운용하는 일이다. 그것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국어학, 언어학, 러시아어학 등의 관련 분야 전문 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방안이다. 이들에게도 전문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필하는 혜택을 주도록 하면 우수한 어학 전문가가 상당수 자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주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의무 근무 기간 동안 그 나라 정부로부터 적절한 현지 생계비를 받도록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적절한 연구비를 보조하여 계속적으로 학문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들이 올바른 한국어를 동포 사회에 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지 동포 사회의 중앙 아시아 한국어 방언을 수집 연구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는 그 곳 토착 민족의 언어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파견된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지의 카자흐어나 우즈베크어, 또는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여 연구하고, 또 주재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 귀국 후에 이들이 해당 지역의 전문가로 자라나게 됨으로써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미래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영토가 우리 나라의 17배나 되며 부존 자원이 주요 품목 별로 거의 모두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7. 국립국어연구원의 재교육 기능

해외 파견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적절한 재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까닭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 문법의 기초, 우리말과 글의 역사, 우리말의 예절 등 통일된 교육 내용 속에 들어 가야 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와 확고한 주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어문 규범과는 상당히 다른 북한의 어문 규범이 통용되던 동포 사회에 우리 어문 규범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언어 규범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하고, 우리 어문 규범의 정통성과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해외 파견 한국어 교수나 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누구든 2주일 정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연수를 받고 국어연구원이 마련한 교재를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극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국어연구원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우리말의 예절, 우리말과 글의 역사 등은 1991년에 출범한 국립국어연구원이 1980년대의 국어연구소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정리해 온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당연히 표준적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마당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해외 동포들에게 표준 국어를 교육하려 할 때 그 지침이 되어야 한다.

8. 교재 개발 및 서적 보급

현지에서는 북한에서 보내온 책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우리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울대학교의 재외국민교육원(현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만든 러시아어 판 ‘기초 한국어 회화’를 서로 구하려고 아우성이고 그 결과 우리 정부가 무료로 배포한 그 책이 비싼 값으로 암거래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해외 동포용 기초 한국어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고 다량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책들과 함께 수준 높은 일반 서적들도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급되는 책은 양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통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보급 경로는 현지 주재 한국교육원과 같은 정부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현지 교민들을 통하여 보급하는 것은 동포 사회의 복잡한 사정에 의하여 분파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심지어 개인이 팔아서 착복할 우려까지 있다(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모든 책은 일단 한국교육원으로 보내도록 하고 교육원은 그 책이 적절히 동포 사회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9. 결 론

현지 정황은 지극히 유동적이고 급변하고 있으며 동포 사회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물가는 일 주일에 열 배씩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우려할 것은 각 공화국의 강력한 민족주의화이다. 만약 카자

호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민족 사이에 어떤 참상이 빚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과 토착 민족 사이의 문제가 제일 먼저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잘 살고 몇 달치씩의 식량을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이 토착 민족에게는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가미된다면 사태는 불행한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현지의 동포들 가운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 우리 나라로부터의 방문자가 너무 많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암흑의 세계에서 갓 헤어나 눈부신 자유의 빛에 눈을 못 뜨고 압도당하고 있는 동포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약속하고 온 말들을 성실히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어 약간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이 엿보이기까지 하였다. 동포들에게 일관된 우리 나라의 방침을 알려 주고 올바른 민족관을 심어 주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더불어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 곳 동포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유능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사들을 엄선하여 장기간 파견하고, 매년 연구원 자체의 연구진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가서 단기간의 연수를 실시하는 일이야말로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된다.